

<2012 하계 자매기관방문 보고서>

- 방문장소 : 안휘성체육국
- 방문일시 : 2012년 07월 09일 ~ 2012년 07월 13일 (4박 5일)
- 방문인원 : 교수님 1명, 교직원 2명, 조교 1명, 학생 9명 총 13명

구 분	학 부	학과(전공/종목)	성 명
교수	스포츠건강복지학부	레저스포츠학과	안성환
직원	대학원부		김미향
	교학처		조용주
조교	대학원부		기선경
학생	체육학과	싸이클	구본재
	사회체육학과		김승현
	사회체육학과		송성윤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변대환
	생활무용학과	한국무용전공	이혜린
	특수체육학과		임태경
	레저스포츠학과		장진아
	스포츠건강관리학과		박고은
	노인체육복지학과		임남훈

▪ 방문일정

날 짜	7월 9일 (월)	7월 10일 (화)	7월 11일 (수)	7월 12일 (목)	7월 13일 (금)
일정내용	13:00 인천공항 H카운터 집결 16:45 합비공항도착 17:00 안휘성체육국 숙소도착 18:30 환영만찬	08:30 체육국 참관 13:00 포청천생가방문 14:00 황산시로 이동 20:00 둔계노가방문	07:00 황산으로 이동 12:00 황산풍경구 17:00 숙소	07:30 광춘방문 11:00 당월패방군 방문 13:00 합비시로 이동 18:00 환송만찬 20:30 시내구경	08:00 조식후 체크아웃 09:00 공항으로 이동 14:20 인천공항 도착

▪ 07월 09일 (1일째)

- 인천공항 1시 집결
- 2시정도 면세점 쇼핑
- 3시 40분 보딩완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여행이라 그런지 처음 만났을 때는 서먹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티켓팅을 마치고 비행 보딩시간까지 시간이 남아 약 한시간정도 면세점에서 자유시간을 가졌다. 비행시간에 맞춰 탑승게이트에서 모여 비행기에 탑승했다. china air 라 그런지 비행기에 타자마자 벌써 중국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약 2시간 정도 비행 후에 함비공항에 비행기의 착륙이 느껴졌다. 다들 여행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수속을 마쳤다.



인천공항 도착



함비공항 도착 후 단체사진

함비공항 도착 후 안휘성체육국에서 나온 현지 가이드분을 만나서 안휘성체육국 약 10분정도 버스를 타고 안휘성체육국 호텔로 이동하였다. 남자 가이드분은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셨고, 여자분은 안휘성체육국의 가이드 분이셨다. 인상이 참 서글서글하니 좋아 보였다. 호텔에 도착후 간단히 짐정리와 휴식시간을 갖고 환영만찬을 마련해 주셔서 안휘성체육국 임원분들과 저녁식사를 가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휘성체육국 호텔



호텔내부



안휘성체육국 환영만찬

▪ 07월 10일 (2일째)

-8시 30분 호텔조식후

-9시 호텔로비 집결

안휘성체육국 방문. 실내체육관으로 실내배드민턴장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배드민턴을 하려고 준비운동을 하고 있었다. 계속 체육관에 있을 때 마다 배드민턴을 하는 분들이 많았고 중국에는 배드민턴이 생활체육으로써 자리 잡고 있는 듯 했다. 그 체육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체육관 안에 굉장히 많은 좌석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체육관과 같은 크기라면 약 2배정도 쯤 많은 좌석이 배치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체사진을 찍은 후 이동하여 한 건물로 들어갔더니 우리나라의 체육학원들처럼 배울 수 있는 학원건물이었다. 태극권을 배울 수 있는 곳에서 한분이 태극권 시범을보여주셔서 보았는데 유연하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니 테니스코트가 있었다. 고위급 간부들이나 공무원들이 시간당 돈을 내고 테니스코트를 빌려주는 곳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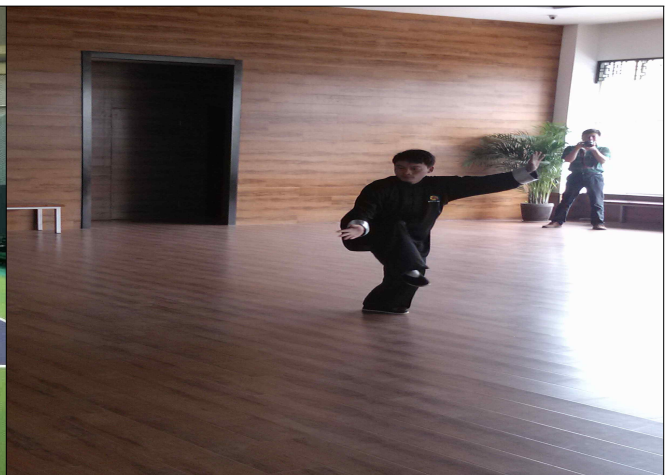
실내체육관



태극권 시범 후 단체사진



테니스코트 사진



쿵푸시범

건물에서 나와 도보로 약 3~5분정도 이동하였는데 이동 중에 야외훈련을 하는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나이들이 다 어려보이는 것 같았는데 정말 다들 열심히 운동하는 것 같았다. 어떤 실내 건물로 들어갔는데 1층 입구에는 올림픽메달리스트들인 중국 선수들의 사진들로 1층을 꾸며 놓았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자 탁구장이 있었는데 어린학생들이 탁구를 치는데 선수 못지 않은 실력들이었다. 우리도 그곳에서 탁구를 치면서 시간을 보냈다.



1층 입구 메달리스트



탁구장 내부모습

다시 나와 버스로 이동 후 우리나라의 헬스장 같은 곳을 방문하였다. 이동 중에도 중간 중간 배드민턴 장이나 탁구장 종합운동장을 볼 수 있었다. 헬스장은 우리나라의 헬스장처럼 비슷하게 생겼었다. 다른 것은 별로 없는 듯 보였다. 내분에는 머신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곳과 에어로빅룸, 스피닝룸, 스트레칭룸,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핫요가룸 등이 있었고, 그곳이 고위간부급들이나 상류층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 시설들이라 개인 PT룸도 있다고 설명해주셨다.



헬스장 외부모습



헬스장 내부모습

간단한 점심식사 후 호텔에 들어 휴식을 취하고 짐을 다 싸서 로비에 집결하였다. 중국드라마로도 방영되었었던 포청천이 살았던 곳을 방문했다. 관광지라 그런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 처음 들어서자마자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놀랐었다. 다들 사진을 찍느라 바빴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중국나라만의 문화로 지어진 곳 이었다. 내부로 더 들어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사진도 찍고 설명도 들으면서 구경을 했다.

			
포청천생가 사진	포청천생가 사진	포청천생가 사진	포청천생가에서

다 둘러보고 나와서 버스를 타고 4시간정도 흘러서 황산시에 도착하였다. 황산시에 도착하여 호텔에 짐을 풀고 안취성팀끼리 저녁식사를 하면서 서로 잘 모르니까 각자 소개도 하고 맥주도 한잔씩 하면서 앞으로 남은 여행을 재미있게 보내자고 서로 담소를 나누었다. 처음에 어색한 분위기가 많이 편해지며 화기애애해지는 시간이었다. 저녁식사 후에 호텔 앞에 옛 거리인 둔계노가를 구경하였다. 우리나라의 인사동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옛 물건들 중에서 문방사우를 주로 판매하는 거리였다. 구경할 것도 많고 신기한 것들도 참 많았다. 또 아직도 옛날처럼 자전거 인력거들이 곳곳에 있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었다. 악세사리들도 많고 각자 다들 필요한 것들은 짚아가면서 사기도 하였다. 정말 웃기기도하고 다들 즐거워하는 것 같이 우리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가득채웠다. 구경을 하다 다음날 황산의 일정을 위해 다들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하고 호텔로 돌아갔다. 만족스러웠던 오늘 일정이 끝나고 내일 황산이 무척이나 기대되었다.

		
둔계노가에서 남학생단체사진	둔계노가 구경하는 사진	교수님과 교직원분들 사진

▪ 07월 11일 (3일째)

- 06시 30분 조식후
- 07시 30분 호텔로비 집결

드디어 황산시의 하이라이트 코스인 황산으로 출발~!!

원래 일정은 마지막날 황산이 예정되었었으나 다음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서 오늘 가기로 하였다. 그럼 여기서 중국의 황산에 대해 알아보고 가자. 황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가질 정도로 아름다운 명산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2개의 호수, 3개의 폭포, 24개의 계류, 해발 1000m가 넘는 72개의 봉우리가 있다. 산 중심부에 3대 주봉인 렌화봉[蓮華峰, 1860m]·광밍정[光明頂, 1840m]·텐두봉[天都峰, 1810m]이 솟아 있다. 어느 곳을 둘러봐도 광경이 빼어나지만 특히나 노송, 운해, 일출, 기괴암석이 빼어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무척이나 기대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버스를 타고 이동 후 황산입구에 도착하여 한참동안 고불고불한 길을 따라간 후에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다. 내려서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곳까지 걸어 올라가기로 했다. 얼마나 높은산 인지 버스를 타고 그렇게나 올라왔는데 케이블카를 타러 또 올라가야 한단다. 황산을 보기위해 케이블카를 타러 모인 관광객들이 평일인데도 엄청나게 많았다. 케이블카입장권을 사고 케이블카를 타기까지 약 2시간정도를 기다렸다. 그런데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중국사람들 정말 예의라는 것과 질서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팀도 기를 쓰고 줄을 따라 올라갔다. 애기하고 기다리고 그러다보니 어느새 케이블카를 문 앞에 도착. 설레이는 마음들을 안고 케이블카에 올라탔다. 타고 올라가는 동안 다들 우와~라는 탄성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커다란 산들의 웅장함에 놀라고 산들의 푸르름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야말로 절경중의 절경이어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얼마나 높은지 케이블카를 타고 10분을 올라갔고 올라가면 갈수록 더 대단한 산의 기운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정말이지 대단했다.



케이블카입구까지 산행



케이블카 입구도착



케이블카 탑승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한 곳은 굉장히 높은 곳이었다. 아래를 보면 아찔할 정도로 아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여기서부터 곳곳을 돌아다니기로 하였다. 다들 주위의 광경에 눈을 떼지 못 할 정도였다. 그만큼 관광객들도 많았다. 가이드를 따라다니며 유명한곳에 대한 소개도 듣고 곳곳의 바위들도 모양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양을 찾아보기도 하며 주변 경치들을 감상하기 눈이 바빴다. 너무 신기한건 이 높은 산에 그 수많은 계단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궁금했고 대단하게 느껴졌다.



감탄하는 학생들



많은 관광객들



아름다운 광경

또 부분 부분마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곳곳에 가마같이 생긴 것들이 있었는데 돈을 내면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가마를 태워주는 것도 있었다. 또 우리가 점심식사를 먹을 식당에 식자재를 나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 사람당 80kg 까지 나른다고 한다.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했다. 그렇지만 황산시에서는 이곳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보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하긴 했다. 우리는 아름다운 바위들과 풍경들을 보면서 점심식사를 할 장소로 올라갔다. 정말이지 이 높은 곳에 식당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다. 사진도 찍고 감탄도하고 이야기도하고 웃으면서 한참을 올라가니 식당이 보였다. 간단히 점심식사를 하며 황산에 대해 이것저것 서로의 느낌을 말하기도 했다.



멋진 안성환교수님



이름모를 바위 위에서



산꼭대기의 식당



다리를 건너면 행복을 가져다 준대요!

저 소나무가 엄청 유명해요!

점심을 먹고 우린 정상에 오르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냈다. 계단들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 걸어서 그런지 다들 조금은 힘들어했다. 여기까지 왔으니 정상을 안보고 갈 수 없어 힘을 내서 오르기로 했다. 점점 정상에 오르니 정말이지 산 아래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우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대단한 광경이었다. 다들 사진도 찍고 그곳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정상이라 그런지 정상이라고 새겨져있는 비석에서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었다. 잠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서해협곡으로 보기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쉬었다 가는 길에 잠시~

정상으로 올라가는길에~

드디어 정상!! 도착!

한참을 걷고 또 걷고.. 걸으면서 서로들 많이 친해진 듯 했다. 서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도하며 우리는 그렇게 걸었다. 경치들도 감상하며 사람들도 구경하며 재밌게 걸었다. 중간 중간 중국인들과 인사도 하고 외국인들과 인사도하고 장난도 쳤다. 서해대협곡을 올라가서 정말 또 한번 황산의 매력에 반해버리고 말았다. 정말 보지 않으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경치였다. 너무너무 좋았다. 날도 덥지 않고 오히려 너무 추웠는데 날씨까지 산행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던다.



서해대협곡 가는 길에~



아~신난다아~~!!!



합장바위를 배경으로~찰칵!



웃긴 사진이 빠질 수 없지!



같이 사진 찍자던 중국인들과



내려가기 전 한 장 더!

몸이 힘들기도 했지만 즐겁고 유쾌했던 산행을 마치고 다시 내려오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이동했다. 다들 내려오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산이라고 산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산의 하나하나마다 매력이 넘치듯 생기 있어 보였고 아름답고 우아한 소나무들이 많아서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었다. 힘들었지만 정말 오길 잘했고 이런 기회가 행운이라고들 말하며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다. 정말이지 우리들 머릿속에 또한 마음속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즐거운 산행을 마치고 내려와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와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고 오늘 등산의 피로를 말끔히 없애줄 마사지를 받으러 이동했다. 정말 시원했다. 마사지를 받고 호텔로 다시 돌아와 각자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내일만 지나면 집에간다니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여행은 늘 그렇듯이 말이다.

▪ 07월 12일 (4일째)

넷째 날은 참 아쉬웠던 날이었다. 황산시에서 짧았지만 이틀을 보내고 다시 합비시로 이동하는 날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아쉬움을 안고 그 날 관광은 사당을 둘러봄으로 시작되었다. 중국 황산시에 있는 사당으로 흔하지 않은 여사당도 있는 곳이었다. 사당은 매우 웅장하고 컸다. 한 가지 낯선 것이 있었는데 건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턱이 무릎까지 오는 등 상당히 높았다. 그 것은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느냐를 나타낸다고 한다.

우리는 사당을 구경하고 나서 굉촌으로 이동하였다. 굉촌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다. 내리자마자 호수가 보였고 호수가 주변에 그림같은 마을들이 있었다. 마을 건너편 호수가에 사람들이 쭈르륵 앉아서 미술도구를 가져와 이젤도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름답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것 같았다. 마을도 예뻐지만 시민들이 앉아서 굉촌을 보고 그림 그리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굉촌에는 민간의 고궁으로 인정되는 승지당이라는 건물이 있었고 그 곳 또한 건물 조각, 크기 등에서 봤을 때 대단한 곳이었다. 중국의 아름다운 시골 중 하나이기도 하다는데 정말 그 말은 맞았다. 골목골목도 중국영화거리 같아 사진 찍기 참 좋았다. 굉촌은 황산과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었다.

굉촌 구경 후 3시간 버스를 타고 합비시로 이동해 체육국 식구들과 마지막 저녁만찬을 가졌다. 만찬 후 마트 쇼핑을 했고 호텔에서 모여 간단한 뒷풀이를 하며 4일간의 중국 방문기 여행을 끝냈다.



아름다운 마을 굉촌에서



아름다운 마을 굉촌에서



합비시에서 쇼핑하며~

▪ 07월 13일 (마지막날)

조식 후 짐을 꾸려 출국시간에 맞춰 9시까지 공항으로 갔다. 출국심사는 9시정도에 했는데 비행기 출발시간은 11시가 넘는 후여서 공항에서 조금 쉬다가 우린 한국으로 출발하였다. 그러고 중국으로 갔을 때와 똑같이 2시간 비행 후 한국에 2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하였다. 각자 중국에서의 즐거웠던 시간을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집으로 귀가했다.

▪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

- 송성윤 (학보사)

군 제대 후 복학한 첫 학기였다.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다양한 대외 활동을 찾아다녔다. 학교에서 자매결연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을 조교선생님께 전해 들었다. 같은 기자들끼리 북경체대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이번 학기에 총학생회·학보사 TO가 묶이는 바람에 총학생회에서 북경체대를 지원하여 갑작스럽게 안휘성 체육국으로 변경 하게 됐다. 알고 지내던 소중한 사람들과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 대신 좋은 사람들을 새롭게 얻는 시간을 갖게 됐다. 7월 2일 OT때 모여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나 어색과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9일 출국 날 합비행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일주일의 시간동안 ‘어색’이라는 단어가 우리들 곁을 지켰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예쁘다고 했던가?” 우리는 그 덕분에 더 빨리 깊이 친해질 수 있었다.

환영·환송 만찬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우리학교로 비유한다면 교무처장님 혹은 총장님이신 분들과 함께 한 만찬에서 너무나 황송한 접대를 받았다.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받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접대였다. 서로의 입맛은 달랐지만 우리 모두 ‘고량주’ 앞에서 하나가 됐다.

둔계노가, 광춘, 당월패방군, 황산풍경구 총 네 곳을 관광하였다. 자연과 어울려 만들어진 중국의 관광명소들은 우리들을 매료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황산’은 입이 떡 벌어지고 감탄사가 연이어졌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돌산들은 안개가 잠깐잠깐 거칠 때 마다 드러나는 웅장함이란 수증기 때문에 사진기로 담을 수 는 없는 자연유산 이었다. 또한 자연 유산을 관광할 수 있게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 계단들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매료 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당월패방군’에서는 사당에 여자조상을 모시는 독특한 관례가 있었다. 마을을 이루는 대 큰 공을 세워 있었는데 남자 조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진 못 했지만 한 칸 뒤에 있더라고 중국의 유교문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관례였지만 여성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 외에도 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지만 개인 소감으로 적기에는 길어 질까봐 이만 적는다.

그렇게 우리는 7월 13일 모든 일정을 아프거나 다친 사람 없이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아쉬움과 다시 뭉치자는 약속과 함께 약속한 해단식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합비시, 안휘성은 일 년 365일중 200일정도 비가 내리는 다우 지역 이었지만 우리가 가있는 5일 동안 관광이 없는 마지막 날 빼고는 4일 동안 해가 떠있는 운이 따랐다. 운과 함께 만난 교수님, 교직원분들과, 항상 ‘콰이콰이!, 콰이콰이!(오다오다, 빨리빨리)’를 외치던 학우들과의 새로운 인연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한다.

- 김승현 (사회체육학과)

출국하기전 해외에 나가는 것이 처음이라 무척이나 기대됐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린 후 합비 공항을 나섰을 때 무척이나 너무 습하고 더워서 4박5일 동안 고생만 하다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숙소에 도착하니 그런 걱정은 모두 사라졌다. 안휘성 체육국의 배려로 호텔에서 생활했고 첫날부터 화려한 중국 음식들로 환영만찬을 열어주었다.

물론 중국 특유의 향신료 때문에 모든 음식이 맛있지는 않았지만,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고 즐거웠다. 우리는 주로 가이드와 함께 안휘성 체육국의 주요 시설들과 황산,

둔계노가, 광춘 등에서 관광을 즐겼다. 안휘성 체육국을 둘러보면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 중국이 왜 올림픽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는지 알 수 있었다.

또 중국의 명산인 황산을 오르면서 중국 대륙의 웅장함과 거대한 기운을 느꼈다. 이번 기회로 인해 중국의 문화에 대해 심도 있게 알 수 있게 되어 즐거웠다.

- 박고은 (운동건강관리학과)

맨 처음에 자매결연이라해서 그냥 학교 방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안취성 체육국은 중국의 도시중심가도 아니고 조금 떨어진 곳이라 걱정반 설렘반으로 가게 되었다. 첫날 도착해서 안취성 체육국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성대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 안취성 체육국을 둘러봤는데, 정말 중국이 체육의 강국이라는 면모를 보여주듯이 여러 체육시설도 잘되었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보기 힘든 택견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절도 있고 멋있었다. 그리고 체육관을 둘러보다 전광판에 “한국체육대학교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글귀를 새겨 보여주셔서 기분이 정말 좋았고 뿌듯했다. 둘째 날에는 차로 세시간 이상이나 걸려 도착한 황산시. 조금 힘들고 지쳤지만 이곳에서 그 힘들만큼 이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경험도 하고 기억에 남은 곳이다. 우리나라의 인사동이라 불리우는 중국의 전통인 문방사우를 파는 곳도 보고 최고는 셋째 날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다섯 손가락에 손꼽히는 황산을 등산한 것이었다. 처음에 중국하면 만리장성이 유명하고 황산은 그다지 잘 들어보지 못한 산이었다. 황산입구 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정말 그 안에서 바라본 황산은 말과 사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입구에 도착해서 황산을 오르는데 돈 주고도 못 볼 그런 광경과 정말 감탄사가 저절로 연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 사진 한 장으로 담을 수 없는 직접 눈으로 봐야할 너무나도 아름다운 산이었다. 경치 하나하나가 안보고 넘어가기에 너무 아까운 그런 산이고 엄청나게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돌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 번 찾아와서 황산은 모든 곳을 다시 둘러보고 싶다.

또 우리나라의 전통한옥과 같이 중국에도 전통 가옥들을 둘러 봤는데 진짜 중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4박5일 짧은 시간동안 날씨도 많이 더웠고 중국음식도 잘 맞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정말 좋은 분위기로 저희 조원의 여러 좋은 선배님들과 교수님들과 가이드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정말 기대 이상으로 좋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다닌 여행 중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다 같이 좋은 기억, 추억 만들어주신 조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안취성과 저희 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_^

- 이혜린 (생활무용학과)

북경팀을 부러움삼고 안취성을 간다고 했을때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

안취성에 도착하고나서는 덥고 습한 날씨, 음식에서 나는 특유의 향, 냄새 등으로 적응은 안되었지만 이틀 날째부터 점점 실감이 되었고 셋째날 황산등반으로 힘들기도 하였지만 같이 갔던 안취성팀 식구들이랑 친해진 것 같기도하고 보람있었다. 넷째날 황산시에서 합비시로 다시 이동했을 땐 너무 아쉬움이 컸다. ‘오늘이 지나면 중국도 안녕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특히 이번 방문기를 통해 느낀것이 많다. 과안에서만 활동을 하다보니 타과 사람들이랑 친해질 기회도 없었는데 이번기회에 좋은 언니, 오빠들, 교수님, 선생님들을 만난 것 같다.

5박6일 이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 재밌었던 안취성 언젠간 또 갈 날이 있을까 싶다. 좋은 경험이 되고 추억이 쌓인것 같다.

- 구본재 (체육학과)

이번 자매기관 방문 프로그램으로 갔던 안휘성은 여러모로 정말 좋았었다.

제일 먼저, 안휘성 자체도 좋았지만 각 학과에서 한 명씩 뽑혀서 가다보니 같이 가는 학생들과 교직원들 조차 서로 잘 알지 못했지만 일정이 진행 되어 감에 따라 서로 친해지고 타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맞아주던 안휘성체육국 관계자 분들의 성대한 환송에 놀랐고, 내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 중국 방문 이었는데 지금까지 그 어느곳에서 보다 맛있고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식사 때 유독 잘 먹는 음식은 미리 따로 준비해 주시기 까지 했다. 식사를 할 때나 평소에 찬물 혹은 찬음료를 주로 마시는 우리와 달리 중국은 따뜻한 차를 주로 마시는데 관계자분들의 배려로 매 식사때마다 찬물과 찬음료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중국의 따뜻한 차 문화가 익숙해 지자 속이 매우 편해 지는걸 느껴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식사할 때에 따뜻한 차를 마시기 시작 하였다.

세 번째로, 중국의 명산 중 하나라는 황산 등산 프로그램은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황산의 아름다운 경치는 한국체육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실로 장관이었다. 고온다습한 중국의 기후에 지쳐있던 우리에게 시원한 산속의 일정은 마치 가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은 반가움이었다.

네 번째로, 역시 비슷한 동북아지역이고 시차도 한 시간 밖에 안나는 멀지 않은 지역이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 했다. 처음 중국을 갔던 것도 아니지만 갈 때마다 놀라운 것 같다. 인구가 많다보니 어딜가도 북적였고(특히 황산은 평일 산행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를 타는데에만 두 시간이 소요될 정도 였다.) 그들의 언어와 말투는 마치 싸움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식습관도 다르고 주도 역시 달랐지만 아무래도 같은 아시아 지역이라 그런지 비슷한 것도 많았다. 유교와 불교같은 종교문화가 그러했고, 관광지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한 풍경 이었다.

해외 교류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이런 문화체험과 탐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 조차도 배움의 기회로 다가왔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4박5일간의 중국 안휘성 자매기관 방문 프로그램은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었고,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과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해주었던 뜻 깊은 프로그램 이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졸업까지 한 학기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야 다녀오게 되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앞으로 교내에서 더 많은 홍보와 지속적인 지원으로 더 많은 학생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 장진아 (레저스포츠학과)

이 느낌을 쓰려고 있는 지금... 같이 갔던 우리 오빠, 동생들이 중국어를 하며 장난치던 모습들, 교수님과 교직원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그만큼 정말이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여행이라 더 행복했고 즐거웠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머릿속에 오래도록 여운이 남아있다. 처음 출발하기 전 새로운 사람들과의 여행의 설레임과 떨림의 순간들, 서로 조금씩 친해지며 장난도 치던 그런 순간들, 황산을 같이 오르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웃음이 되어주던 순간들, 여러 가지 기억들이 가득한 여행이었다. 학교에서 자매 학교를 보내준다고 해서 사실 그냥 학교만 방문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안휘성 쪽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곳곳의 볼거리도 안내해주시고 직접 여행가이드도 해주시면서 중국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다. 특히 체육국을 둘러볼 때 마다 정말 체육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이든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자신이 하려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다. 나 자신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4박5일 동안 여러 곳의 중국의 명소들을 둘러보며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 포청천생가도 너무나 경치가 아름다웠고, 핑촌도 한 여성의 아이디어로 한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그것 또한 대단하단 생각이 들었다. 정말이지 그림 같은 풍경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있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지 이 마을을 그림으로 담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였다.



핑촌의 아름다운 그림같은 풍경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좋았고 놀랐던 곳은 황산이었다. 정말이지 눈으로 보고나니 입이 딱~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정말 그 규모는 굉장했다. 구름들이 하얗게 끼어있는 모습들. 그런 구름이 걷혀질 때마다 보여주던 장관들. 모든 것이 최고였다. 한눈에 담고 싶어 카메라로 찍으려 하는데 너무 높고, 커서 한눈에 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아쉽지만 한순간 한순간 마음에 담아가기로 했다.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는게 힘들긴 했지만 올라갈수록 너무 멋있어서 계속 오르고 있었다. 너무나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산이었다. 어떤 곳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들이 하나도 뺄 수 없이 장관이었고 다른 느낌들이 있었다. 정말 좋았던 산행이었다. 가야할 때가 점점 되어가니 우리들은 어색함이 가득한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마지막 날은 중국의 고량주로 우린 하나가 되어있었다. 언제나 여행에는 아쉬움이 남듯이 이번여행 또한 아쉬움도 많이 남고 더 여행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다들 좀 더 있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지만 아쉬움을 뒤로한 채 우린 우리의 자리로 돌아왔다. 학교에서 이런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줘서 행운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임남훈 (노인체육복지학과)

“중국은 엄청난 나라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있으면서 한시도 놓치지 않고 이곳저곳을 갈 때마다 든 생각이다. 어느 곳을 가든 규모와 크기 면에서 놀라움만 가득했다. 특히 황산에서 느낀 중국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황산에는 첨단기술, 빌딩 등 현대사회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한 가지도 없었지만 그 곳에서 중국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볼 수 있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이 묻어나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보이는 풍경과 계단을 통해 정상에 올라갈 때 주변을 실제로 본다면 누구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리라

4박5일의 짧은 중국 여행이었지만 많은 것을 얻어간다. 특히 중국과 중국어에 대한 애정을 얻어간다. 한 가지 더, 사람을 얻어간다. 이 두 가지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사람 얻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다. 어쨌든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 우리 학교가 고맙다. 마지막으로 난 지금 비록 4학년이지만 무럭무럭 커가는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소중한 기회들을 직접 찾아서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Tamen ye dou hen hao!!

- 변대환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중국 안휘성을 방문하고 나서

먼저, 이번 방문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신 스청지의 대부 길은배 학과장님과 스청지의 든든한 말형 이경구 조교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습한 날씨가 힘들게 하였지만 안휘성에서의 하루하루는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장관이 즐비한 안휘성은 단순한 휴가로 생각했던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아무생각없이 출발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황산과 삼국지에서 더 유명한 합비는 다른 여행지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지쳐있던 나에게 대륙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후배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알려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싶다. 끝으로 4박5일을 함께했던 교수님과 교직원분들 그리고 학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